

여수시-여수산단, 긴급 안전점검 완료

여수시와 여수산단이 포함지진 이후 실시한 긴급 안전점검이 지난 달 30일 완료됐다.

지난달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으로 280여km 떨어진 여수지역에도 진동이 감지됐다. 당시 GS칼텍스 여수공장에 설치된 지진감지기는 규모 3.0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여수시와 여수산단 53개 석유화학업체는 즉시 긴급 안전점검에 들어갔다.

점검내용은 지진피해 발생 여부, 각종 배관 안전관리 상태, 저장시설 안전 여부, 가스검지기 정상가동 여부 등이었다.

지난달 30일까지 실시된 사업장 자체점검 결과 포항지진에 따른 여수산단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의 공장 시설이 내진설계가 적용됐고, 내진설계 적용 전인 1988년 이전 시설도 진도 5.5~7의 지진에 대비해 설계됐기 때문이다. 점검을 마친 산단 기업들은 현재

포항 지진 피해 無...대부분 내진설계 적용 추가 안전조치로 구조 안전성 용역 실시 등



구조 안전성 용역 실시(검토), 공장 내 재해위험지역 보강, 지진 감지기 설치 등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9월부터 유

관기관과 함께 산단 정밀안전진단도 실시하고 있다. 분야는 고압가스 및 전기분야로 내년 4월 완료가 목표다. 고압가스의 경우 초고압·특수반

응설비가 포함된 12개 사업장 51개 공정이 대상이며, 12월 현재까지 5개 사업장 12개 공정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진단을 받았다.

전기분야 진단은 전기안전공사가 산단 53개 사업장의 수전·고압변전설비를 대상으로 실시 중이다. 12월 현재 16개 사업장의 진단이 완료됐다.

시는 안전진단과 함께 선진 안전기법 도입을 위한 학술대회 등도 활발하게 개최하고 있다. 지난 9월 2017년 화학공장공정 및 화학물질 안전 관리방안 심포지엄, 11월 국가산업단지 통합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 지난 6일 '석유화학 공정 및 전기 선진 안전관리 방안 세미나' 등이다.

시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지진에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이 여수산단에 대한 불안감과 격정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산단기업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안전한 산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장흥군 장평면, 어르신 이름쓰기 교육

오는 15일까지... '이는 것이 힘이다' 주제

장흥군 장평면(면장 김동욱)은 지난 11일 장평면민회관 2층에서 '이는 것이 힘이다'란 주제로 어르신 이름쓰기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11월 27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열리는 이번 교육은 매주 2회씩 총 6회에 걸쳐 진행된다.

어르신 이름쓰기 교육은 행정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각종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어린 시절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학교를 다니지 못해 한글을 전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처음 20명 남짓으로 시작한 인원은 직접 교육을 받으신 어르신

들의 입소문을 타고 지금은 40여명 정도가 한글 공부에 참여 중이다.

비록 늦은 나이에 시작한 공부지만 연필을 잡고 한 자 한 자 정성스럽게 이름을 쓰는 어르신들의 열정은 시험을 앞둔 학생들보다 뜨거운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한 어르신은 "우편물에 적혀 있는 이름을 보고 본인에게 왔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며, "시작은 두려웠지만 교육 받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동욱 장평면장은 "교육에 참석한 모든 어르신이 자기 이름을 읽고 쓰면서 만족해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생활에 필요한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종민 기자

무안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위택스로"

무안군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전지신고 납부활성화를 위해 특별징수위탁자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위택스 전지신고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는 수기분 납부서로 신고·납부할 경우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납부 등이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납부 후 1~2주간 수납확인이 어려워 지방세정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업무담당자가 일일이 수작업으로 수납처리를 해야 하는 비효율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한편 위택스 전지신고·납부를 이용하면 가상계좌, 신용카드, 현금입출금기(CD/ATM) 등 다양한 납부가 가능하므로 납세자가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다.

무안군은 최근 3년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수기 납부율이 2014년 71%, 2016년 67%, 2016년 59%에 달하지만 연간 4천여 건이 넘는 수기신고 건수는 줄어들지 않는 실정이다.

무안=이기성 기자

여수시, 정규직 전환 '공개채용'·'기존 근로자가점'

여수시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향을 '공개경쟁 채용'과 '기존 근로자 가점제'로 잡았다.

정부는 가이드라인 발표인 지난 7월 20일 이전 계약이 종료된 근로자를 포함한 일반시민의 응시 기회 박탈을 막고, 이를 계기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채용방식을 확립해 나간다는 것이다.

합리적인 수준의 가점제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8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제5차 여수시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됐다.

정규직전환심의위는 이날 공개경쟁 채용을 내용으로 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채용방식 결정안과

채용방식은 직종에 따라 필기시험과 체력시험, 면접 등이 혼용되며 구체적인 채용일정은 이달 중순께 공고할 예정이다.

시는 현 근로자 포함 기존 기간제근로자들에게는 합리적인 수준의 가점제를 부여할 계획이다. 여수에 근무한 기간에 따라 최대 5점의 필기시험 가점을 부여한다.

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인 7월 20일 현재 근무자는 필기시험 점수가 40점을 넘으면 합격배수(2배수 내)에 관계없이 면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노철 안전행정국장은 "기존 근로자의 고용 안정이나 채용기회의 균등이냐를 놓고 많은 고민을 했다"며 "당사자인 기간제근로자와 시민 등 많은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 내린 결론인 만큼 공정한 채용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7월 20일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 후 총 5차례의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며 전환 범위와 방식에 대해 고심했다.

부서별 의견 수렴 3회 100인 시민위원회 전체회의 1회, 기간제근로자와의 대화 6회 등 의견수렴 또한 빼놓지 않았다.

여수=송기홍 기자

338명 중 163명 업무...사무보조·주정차 단속 등

5차례 전환심의위원회·10여회 의견수렴 등 거쳐

11일 이노철 여수시 안전행정국장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지난 8일 여수시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향과 범위에 대해 발표했다.

이노철 안전행정국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39개 부서 338명의 업무 중 163명의 업무에 대해서 진행하며, 전환 방식은 공개경쟁을 통한 채용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결정은 채용의 공정성과 기회의 형평성을 저해하지 않기 위한 것이며, 기존 근로자에게

163명의 업무를 정규직화 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범위 결정안'을 의결했다.

심의위의 의결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업무는 사무보조, 시설물 청소·관리, 건강·의료 및 사회복지, 주정차단속, 공영주차장 관리 등이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예외로 규정된 '정부 재정지원 아보다 적은 '기간제 운영 적합사업', 지속적으로 근무가 가능한 '고령자 친화사업' 등은 제외됐다.

진도군, 실내체육시설 전면

금연구역 지정·운영 홍보

진도군이 지난 12월 3일부터 실내체육시설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11일 진도군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행에 따라 금연구역로 추가된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수영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공중이용시설 1,085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정했다.

해당시설에서 전자담배 등 흡연시 과태료 10만 원,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를 하지 않는 업주는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그동안 진도군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해당 시설을 방문해 금연포지판, 스티커 부착 등 홍보와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실내체육시설 금연 추가 확대로 연중 단속대상은 행정기관, 학



교, 보건·의료기관, 관광숙박업소,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시설, 학원, 음식점 등 가평군내 공중이용시설 1,085개소에 이른다.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충분한 홍보를 통해 법 개정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관계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금연 환경조성으로 이용객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진도=조상용 기자

화순 건강한 먹거리의 시작, 에서 힐링을 맛보세요!

파프리카, 복숭아, 블루베리, 방울토마토, 느타리버섯, 산양삼